

올 공공비축미곡 매입 본격 시작

도, 전년보다 1534톤 많은 4만7425톤 배정... 전국 친환경 벼 매입 시범 추진 5000여톤 중 42% 배정받아

전북도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4만7,425톤(전국 35만톤, 13.6%)으로 전년보다 1,534톤 증가한 물량으로 전국에서 4번째(2017년 5위)로 많은 량을 배정받아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10월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000톤의 친환경 벼 매입을 시범 추진하는데, 전북도는 이 중 약 42%인 2,100톤을 배정받아 공공비축 매입 기간에 매입,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군수용으로 우선 공급한다. 친환경 벼의 경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료를 채취,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와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쌀의 품질 고급화 및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을 줄이고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 일회하여 시·군 및 농관원이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품

종검정제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 농가 중 5%를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민간검정기관에서 검정을 실시, 품종을 확인하며,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12월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 중간정산금(3만원/40kg)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18년 매입대금에서 미납액을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배정받은 것은 농도 전북에 있어서 의미있는 결과"라며, "올해 전국 4위(2017년 5위)의 배정량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배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저출산 대응방안 공모 11건

전북도는 10월 2018년 공모제안심사위원회 도민테마제안 본심사를 진행해 수상제안 6건과 장려제안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리 결혼해요! 결혼걱정 출산걱정 없는 전북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에 접수된 152건의 제안 중 11건을 선정할 것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공모제안 심사위원회는 구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 5명을 선정했다.

금상에는 결혼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결혼을 앞둔 미래 부부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한 점은경씨의 '결혼테마공원 조성'이 선정됐다.

은상은 '육아도우미 시설을 통한 긴급 육아지원', '맞벌이 부부 자녀 안전귀가 지원'이 각각 차지했다.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3일째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사흘째인 10일에 안치된 남원을 출발해 순창, 고창을 거쳐 정읍에 안치한다고 밝혔다. 남원에서의 출발식은 신관사도 취타공연으로 남원시청 광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사도 부임행렬 이색특별봉송을 시작했다. /김진성 기자

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불가역적”

보건복지위 국무서 김광수 의원 질문에... 김 의원, 운용위원회의 서울에서만 열린 점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연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을 강력규탄하며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질의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축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어 국민연금법 27조에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이 불가역적인 상황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 복지부 장관의 “예(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7차례 회의가 효율성을 위해 서

울에서만 열린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국체전 육상 출전 조혜림 선수

“전북의 맛과 멋 선물할 것”

“좋은 성과와 함께 전북 이미지 알리고파”

“전북도민들에게는 금메달을 전국 시·도 선수들에게는 전북의 멋과 맛을 선물하겠습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 선수단으로 육상 종목에 출전하는 조혜림(32·여) 선수의 각오다.



화이팅을 외치는 조혜림 선수.

전국체전을 이틀 앞둔 10일 익산종합경기장에서 전북 선수단 대표로 만난 조혜림 선수는 막판 훈련이 한창이었다.

육상경기 투척 종목인 원반던지기(여자 일반부)에 출전하는 익산시청 소속인 조 선수는 금메달을 획득,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컨디션 조절과 함께 집중 훈련을 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때 체육교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조 선수는 전북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 지금까지 줄곧 전북 선수단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누볐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충북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지난 6월 열린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을

2018 목포국제육상투척경기에서는 아쉽게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 선수가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각오는 그 어느 대회보다 남다르다.

고향인 전북에서 열리는만큼 한국신기록 달성에 도전한 것이다. 현재까지 여자 자일반부 한국신기록은 54m76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선수는 좋은 성과와 함께 '전북 홍보대사'가 돼 전북의 좋은 이미지를 타 시도 선수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조 선수는 "내 고향인 전북에서 15년만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만큼 좋은 성적은 물론이고 맛있는 음식을 비롯해 유명 관광지 등도 둘러 한다"며 "홈경기이다보니 더욱 긴장도 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북 체육의 위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각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선수들은 응원에 힘입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선수단은 종합성적 3위를 목표로 이번 전국체전에 총 1725명(선수 1315명, 임원 410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식품산업 역량 강화 앞장”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2018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성공 개최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진흥원은 10일 "지난해 행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북 식품기업 성장과 역량을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구성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추진 등 식품산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성과 극대화를 위해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엑스포는 '발효, 식품산업의 미

래 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세계 20개국 360개사가 참가하며, 총 400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정부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식품산업' 육성을 공표한 상황에서 전북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와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행사의 주요 활성화 전략으로 마케팅, 전시, 콘퍼런스, 체험 및 부대행사 등을 추진한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